박성만 · 임종훈 고창군의원, 2023년 빛낸 인물 수상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원과 임종훈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하였다.

박성만 의원과 임종훈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의회 발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상을 수상한 박성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도하였으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한 해를 열심히 보냈음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난 1년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앞장섰던 임종훈 의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으니 책임이 더 막중하게 느껴진다. 내년에도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올해를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정치발전, 의회 발전, 지역사회 공헌, 경영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사회봉사정신, 문화예술발전 등 각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식 조직위원회와 국회출입 기자클럽 등이 주최하고 데일리뉴스 등이 주관하여 마련된 행사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조민규 · 오세환 고창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과 오세환 의원이 지난 21일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조민규 의원과 오세환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의회 발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민규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종 조례 등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등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발전하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환 의원은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여러한 문제 지적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지난 일 년간의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도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보건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부

남원시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시 보건소에서 이웃돕기 성금 3백만원을 기부해 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7월 개최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합동 성과대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포상금 중 일부를 기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올겨울 나눔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을 돕는 온정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다"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2023년 아이돌보미 송년 화합의 장

전북도, 아이돌봄지원사업 관계자 송년 한마당 행사 개최

전북도는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돌봄지원사업 송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송년 한마당 행사'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협조한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지원사업 실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됐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 사업보고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기 중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각 시·군별 아이돌보미의 춤, 댄스 등 장기자랑을 뽐내고, 이를 시상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아이돌보미가 2023년을 뜻깊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유쾌한 자리가 됐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수당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했고, 월 100시간 이상 영아돌봄을 제공하는 돌보미에게 지원하는 '영아돌봄수당'의 요건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 전북도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공백을 해소하는데 애써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는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위탁가정아동 위한 성금 전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지난 22일 위탁가정아동 식료품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전북지역 위탁아동 보호를 총괄하고 있는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결식위기에 놓인 50명의 아동을 선정해 그들에게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료품을 지원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의 위탁가정아동은 조부모에 의한 대리 양육인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방학기간 급식이 중단될 경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며 "기본적인 권리인 '식사의 권리' 조차 박탈당한 위기아동에게 희망을 전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고창군-선운사복지재단, 가족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 체결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21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스님)과 고창군가족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공개모집을 거쳐 20일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심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에 최종 위탁을 결정했다.

선운사복지재단은 고창군 가족센터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간 고창군 가족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상으로 4대 분야(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향후 위탁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에게 맞춤형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건협 전북도회, 순창군에 성금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22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만들어진 협회로, 이웃사랑 실천에도 아낌없이 공헌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근홍 회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의 사랑이 담은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잊지 않고 나눔 실천에 앞장 서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 바르게살기운동협 · 기아오토큐 장학금 기탁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는 지난 22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만성 회장은 "무주로 전학을 오는 아이들도 생기고 무주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걸 지켜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든다"라며 "장학금은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정성"이라고 전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는 친절과 질서, 생활 문화 정착 등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해마다 봉사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같은 날 기아오토큐 무주점(대표 오정한 & 정명화)에서도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무주가 고향인 이들 부부는 "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 연말연시 사랑의 쌀 나눔

전북도에 따르면 (사)한국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회장 김대식)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쌀(백미) 175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2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사)한국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 김대식 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말연시 지역사회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이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진행됐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연말연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에 훈훈한 이웃사랑으로 나눔온도를 높여주신 한국들녘경영체 전북연합회 회원들과 김대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중앙교회, 노암동에 연탄 1000장 기탁

남원시 노암동은 남원중앙교회(목사 정종승)가 지난 21일, 노암동에 연탄 1,000장(환가액 1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탁된 연탄은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웃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교회 관계자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정종승 목사는 "주위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BWF 올해의 선수' 서승재, 부안 고향사랑 기부

부안군은 지난 21일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서승재 선수가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안군 행안면 출신인 서승재 선수는 주니어 시절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다. 2013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2014년 대만 타이베이, 2015년 태국 방콕 등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물론 주니어 세계 선수권, 수디르만 컵, 유니버시아드, 아시아팀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입상했다.

지난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혼합복식·남자복식)를 차지했다. 이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혼합복식 동메달을 따며, 배드민턴계의 주목을 받아 연말 BWF 2023 올해의 남자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났다. /부안=김석진 기자

장계농협-계남 부녀회, 마을경로당 밀가루 나눔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과 계남면 부녀회(연학회장 박흥순)에서는 매서운 겨울 마을경로당 29개 영농회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밀가루' 나눔활동을 지난 21일 전개했다.

계남면부녀회는 2023년도 다양한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출현하여, 함께하여 행복한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 또한, 지역의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박흥순 회장(계남면 부녀회연합회장)은 "겨울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에 부녀회원들의 고향사랑 마음을 담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